

# 광주시,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물가안정 · 교통소통 · 비상진료 · 환경정비 등 10개 분야

## 추석연휴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맞이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외계층 지원, 물가안정, 체불임금 해소, 교통소통, 성묘객 편의 증진, 안전관리 비상진료, 환경정비, 급수, 공지기자기 확립 등 10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명절 기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3개 복지시설과 단체에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세대당 10만원을, 결식우려 아동 6200여명에게

도시락 또는 급식제공 지정업소 이용권을 제공한다.

추석을 앞두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하고 성수품 가격표시 미아행·불공정 거래 지도 등 물가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누리상품권 사주기를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귀성객과 성묘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귀성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영락공원 방면 시내버스 518번을 하루 9대 증차해 28회 추가 운영한다.

영락노인복지관까지 운영하는 지원원 15번은 노선 일부를 변경해 영락공원을 경유토록 하고, 용전86번은 종점

을 연장해 영락공원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연휴 전날인 9월11일 막차 이후 상·하행선 양방향 모두 송정역에서 밤 12시45분에 출발하는 일차를 추가 운영한다.

영락공원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늘리고 임시분향소 44곳과 임시주차장 820개

면을 추가 확보한다.

시는 연휴 기간 각종 재난과 안전 관리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소방조사

를 하고 태풍에 대비한 풍수해 대책과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 등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25곳을 운영한다.

자치구 5개 보건소는 주석 당일에도 정상 근무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

번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당직 의료

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급수 불편이 없도록 고지 대 등 출수 불량 예상지역 16곳을 사전 점검하고 수도 관련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각 상수도사업소와 정수장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또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도시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일제대청소, 노상적치불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 시기지를 정비한다.

연휴 기간에는 기동처리반과 환경미화원 1675명이 특별근무하고 추석명절 당일을 제외하는 가로청소 실시와 가정쓰레기 수거할 계획이다.

시는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 4일간 6개반 14개 분야의 종합상황실과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대책반 등 총 2341명이 비상근무를 하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 LP가스 공급업소현황, 민원서류 발급 안내 등에 대한 정보는 120콜센터, 종합상황실, 당직실에서 24시간 안내한다.

김준영 시 차지행정국장은 "추석연휴를 맞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동구,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아카데미 2기 개최

광주 동구가 주민주도 소규모 재생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아카데미 2기' 참여자를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4주간 총 6회에 걸쳐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계림1동(금수장호텔 일원)을 대상으로 설정해 전문가 특강, 선진지 견학, 텀블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계림1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을활동가 등 30여 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9월 9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구정읍 '두드림',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danielsim@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서구, 미국 흰불나방 방제 총력

광주 서구가 최근 할엽수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돌발 해충인 미국흰불나방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서구 마을동 도로변 가로수에 솔娼이와 비슷한 벌레가 잎을 먹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조사 결과 미국 흰불나방 유충으로 확인됐다.

미국 흰불나방은 뽕나무, 왕벚나무, 버즘나무 등 대부분의 할엽수에 나타나며 나뭇가지에 거미줄로 막을 형성하고 잎을 먹어치운다.

피해를 입은 나무는 나뭇잎의 일매만 양상하게 남아 세력이 약해지는 등 미관을 해치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된다.

## 남구, 숲에서 농 생태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광주 남구는 28일 "진환경 생태학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제석산을 비롯해 금당산, 제봉산, 분적산, 짚봉산, 월산근린공원 생태문화 탐방로 등 6곳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 등은 6곳 코스 가운데 탐방을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탐방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가량이다.

각 코스마다 생태문화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해설사들이 배치돼 프로그램에 참여한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참가자들 역시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환경생태과(☎ 607-3612)로 문의하면 된다.

## 북구, 지역 최초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광주 북구가 남성 흘봄노인 자립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생명보헤회사 공헌재단이 실시한 2019년 하반기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은 여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 흘봄노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운영 중이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북구가 처음으로 운영하게 된다.

북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힐링센터 전용공간 리모델링비 1억 3천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두암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교육실, 요리실, 운동실 등 전용공간 확보 후 힐링센터를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광산구 송정1동 마을안전지킴이, 안전체험행사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1동 '3安 마을 안전지킴이' (대표 노남기)가 광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오감으로 배우는 솔솔 안전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가상현실(VR), 소방복 입어보기, 교통안전 색칠놀이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1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안전지킴이 노남기 대표는 "주민이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기 위해 준비한 행사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송정1동을 위해서 더 많은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국방드론 사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 드론사업 육성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자찬 LIG넥스원 대표이사, 소영민 제32보병사단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조문수 한국드론산업진흥회장.

## 농산업 中企 육성 위한 '청년 창농타운' 조성

전남농업기술원 118억 투입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산업 분야 고부가가치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창농타운은 총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해오는 2019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완공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실습형 창농타운은 미래 농산업 패

러디엄을 바탕 농산업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농산업 창업전문 투입으로 조성된다. 농업과학기술 기반형 농산업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농업연구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안에 들어선다.

기업이나 유관기관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농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센터',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제품지원센터', 전주기적 창업교육을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 등으로 구성된다.

## 시의원들 "광주형 일자리 대표이사 재선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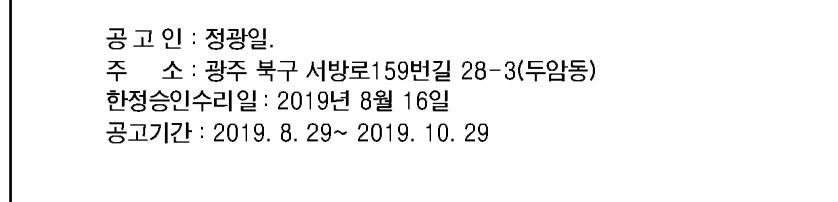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초대 대표이사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된 가운데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재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반재신·신수정·장연주·정무창 의원 등 4명은 28일 성명을 통해 '박광태 전 시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초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광주시는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을 충분히 이해

하고 국제적 판단 능력과 경력을 겸비한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책임질 완성차 공장의 대표이사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사 상생과 사회 대통합에 어울리는 인물로 교체해야만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출발할 수 있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은 초대 대표이사 선임을 취소하고 광주시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인물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창농타운 조성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을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이다. 청년 창농타운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을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이다. 청년 창농타운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을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이다. 청년 창농타운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을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이다. 청년 창농타운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을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이다. 청년 창농타운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을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이다. 청년 창농타운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을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이다. 청년 창농타운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